

OECD BLI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삶의 질

Quality of Life in Korea on OECD Better Life Index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1. 들어가며

OECD는 2015년 5월 국가별 삶의 질 수준을 측정하는 ‘보다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발표된 BLI를 놓고 두 가지 결과에 주목하였다. 첫째, 인지된 사회적 지원 관계망의 질 수준의 하락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72%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2014년 77%에 비해 약 5%p 하락하였다(순위는 36개국²⁾ 중 34위에서 36위로 하락). 둘째, 삶의 만족도의 하락이다. 0~10점의 11점 척도로 구성된 삶의 만족도는 2014년 6.0점에서 2015년에는 5.8점으로 하락하였다(순위는 25위에서 29위로 하락). 우리 삶이 물질적 수준보다 정신적 수준에서 퇴보하였다는 우려가 사실로 나타났다.

비교 국가 차원에서 제시되는 통계들은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진

단하는데 유용하다. 이때 유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수를 구성하면서 제시하고자 하였던 정책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결과로서의 통계치를 놓고, 원인을 진단할 때 상상력의 나래를 펼 수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과 관련하여 국제 비교 가능한 사회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경제발전을 어느 정도 이뤘다고 생각함에도 삶의 질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이 관심의 큰 이유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정작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한국은 몇 위인가?’에만 관심을 보인다. 우리 사회의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집중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통계가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보다는 발표되는 통계의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통계의 맥락을 짚어 보려는 목적 하에 삶의 질 지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발표된 OECD BLI의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1) OECD 가입국은 34개국이지만, BLI에서는 비회원국인 브라질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순위를 제시한다.

그리고 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BLI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삶의 질²⁾ 지수와 행복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적 지표를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라 한다. 우리는 주된 사회지표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지표는 GDP이며, 물질적 성장이 전반적인 사회발전을 추동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이 사회발전의 수준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보다 사회적 수준의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이 흐름의 대표주자이다. HDI는 인간의 자기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인권선언의 '자유 인간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요소로 소득, 교육, 건강에 주목한다. 이후 경제적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수준의 발전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다. 사회진보지수(Social Progress Index)와 이 글에서 주목하는 BLI가 한 예이다.

이들 지수 구성에서는 주관적 인식 수준과 경

제적 성과 변수의 포함 여부 등의 쟁점이 있다.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객관적 사실·조건에 입각해서 분석할 것이냐, 해당 사회 시민들의 주관적 인식 수준에 근거해서 분석할 것이냐는 논란의 대상이었다⁴⁾. 사회조사 방법이 개발될수록 주관적 인식 수준의 활용 가능성·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동시에 주관적 인식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적 여건 수준도 삶의 질 수준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근래 '삶의 질' 논의에서는 매우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사회적 자본, 인적 자본, 사회통합 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연과의 공존·공생도 지표 내용으로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삶의 질 지수이고, 무엇이 아니라는 구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삶의 질 지수는 인간 개인의 복지·안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경제적 변인을 포함해서도 삶의 질 지수라고 하고, 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삶의 질 지수 구성에서 경제적 변인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여기서는 사회지수 중에서 인간 중심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들을 광의의 삶의 질 지수로 선정하였다. <표 1>은 이들 지수의 사용지표와 한국의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HDI는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에 실린다. HDI는 건강한 장수, 지식, 적절한 삶의 기준이라는 세 차원을 반영

2) 이 글은 OECD BLI를 분석하므로 '삶의 수준'이 바람직한 제목이다. 그러나 '삶의 수준' 개념이 모호함으로 인해 '삶의 질'이라는 제목을 사용한다.

3) 본고는 전반적인 방향성의 설정을 목표로 하므로, 통계 수치의 여러 의미와 최근 변화 등은 간략히 언급하고 그칠 것이다.

4) 이와 관련하여 Veenhoven, R. (1996), Developments in satisfaction-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37(1), pp.1-46. 및 정해식 (2012), 사회의 질(SQ), 그 측정과 적용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47-59.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 지표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발전 정도

구분	HDI	IHDI	GII	SPI	BLI
소관기관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Social Progress Imperative (사회진보조사기구)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목적	발전경제학의 초점을 국민소득 접근에서 인간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			사회적 진보를 측정함으로써 정부 정책, 기업 행위, 시민사회 활동에 기여	현재의 웰빙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사회적 진보를 도모
사용지표	기대수명지수 (기대수명), 교육지수 (평균취학년수, 기대취학년수), GNI지수 (1인당 GNI(PPPs))	불평등정도로 조정된 HDI의 지수	건강(모성사망비, 청소년출산율), 역능성 (여성의 의회의 석비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의 남녀 비율), 노동시장(남녀 노동시장 참가율)	기본육구, 웰빙의 기반, 기회의 3개 차원(각 4개씩 총 12개 하위지표)	주거, 소득, 직업, 공동체, 교육, 환경, 시민참여, 건강, 삶의 만족, 안전, 일과 삶의 균형의 11개 영역 (24개 지표)
발표년도	2014	2014	2014	2015	2015
평가대상국	187개국	145개국	148개국	133개국	36개국
1위 국가(값)	노르웨이(0.944)	노르웨이(0.891)	에스토니아(1.042)	노르웨이(88.36)	호주(9.08)
한국의 위치- 순위(값)	15(0.891)	33(0.736)	17(0.101)	29(77.7)	27(5.27)

주: 1) 각 지수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HDI-Human Development Index, IHDI-Inequality adjusted HDI, GII-Gender Inequality Index, SPI-Social Progress Index, BLI-Better Life Index

2) BLI 점수는 저자가 계산한 값이다.

자료: 1) HDI 계열, UNDP(2014), Human Development Report 2014.

2) SPI, SPI(2015), <http://www.socialprogressimperative.org>(2015.6.20.인출)

3) BLI, OECD(2015), Better life Index-Edition 2015, <http://stats.oecd.org>(2015.6.20.인출)

하는 세 가지 지수(기대수명지수, 교육지수, GNI 지수)를 네 개의 지표로 측정한다.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는 불평등조정 인간개발지수(IHDI)를 추가하였다. IHDI는 HDI가 국가 평균값만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정하고자, 개별 국가 내에서 지표의 분포를 고려하여 조정한 값이다⁵⁾. 성불평등지수(GII)는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으로 인해 건강, 역능성(empowerment), 노동시장의 차원에서 인간잠재력의 발현이 저해되는 정

도를 고려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인간개발보고서는 남녀평등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다차원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를 보고하고 있다.

SPI는 사회진보조사기구에 의해 2013년부터 발표되어왔다. 이 기구는 20세기 경제적 사회진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의 GDP가 새로운 사회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그래서 SPI

5) IHDI는 개별 국가의 해당 지표의 분포 정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확보되지 않은 국가는 값을 산출하지 않는다.

는 경제적 차원의 지표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회적 및 환경적 결과물의 수준만을 채택한다. 기본욕구와 웰빙의 기반, 그리고 기회라는 세 가지 차원에 각 4개의 하위지표를 이용한다.

BLI는 OECD에서 현재 홈페이지(www.oecd-betterlifeindex.org)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OECD는 2011년 『How's life?』라는 보고서를 통해, 물질적 삶의 조건(Material Living Conditions), 삶의 질(Quality of Life), 안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Well-being)의 세 차원을 고려한 삶의 질 수준의 측정지표를 제안하였다. BLI는 이 보고서에 바탕을 두고 발전된 지표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수준, 사회적 수준의 발전은 인간의 행복 정도와 관련된다. 사람들이 안녕한 삶을 사는 조건, 즉 '행복'을 위한 조건은 정책 목표 설정에 중

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이런 조건과 행복의 관계는 어느 정도인가? 아래 <표 2>는 BLI 발표가 이뤄지는 36개국 중 34개국⁶⁾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지수, 1인당 GDP, 행복도와의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⁷⁾.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주요 지수들인 IHDI, SPI, BLI는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지수 중에서는 BLI가 행복도와 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63$). 주관적인 국민 인식 수준이 포함되는 등의 이유로 국민 행복도 설명에는 BLI가 여러 지수들 중에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GDP 역시 행복도와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56$), 여러 연구에서는 1인당 GDP와 행복 또는 삶의 만족의 관계가 $r=.6$ 의 관계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⁸⁾. 즉, 단일지표로서는 GDP의 설명력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표 2. 삶의 질 지수와 GDP, 국가별 행복 수준의 상관관계(Pearson's R)

구분	HDI 2014	IDHI 2014	SPI 2015	BLI 2015	GDP 2014
IHDI 2014	0.9023	1			
SPI 2015	0.8457	0.8265	1		
BLI 2015	0.8796	0.8436	0.8828	1	
1인당 GDP 2014	0.9116	0.8287	0.8060	0.8975	1
국가 행복도 2015	0.4764	0.3175	0.5238	0.6246	0.5578
N	34	34	34	34	34

주: 러시아와 브라질의 1인당 GDP는 2013년 기준임.

자료: 1) 1인당 GDP: OECD National Accounts,

2) 행복도(주관적 안녕): Helliwell, J., Layard, R., and Sachs, J. (Eds.) (2015). World Happiness Report 2015.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6) 뉴질랜드는 IHDI, 룩셈부르크는 SPI의 관련 값이 없다.

7) 행복도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근래 들어 발표되는 세계행복보고서의 주된 측정 내용은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다. 초기의 행복보고서는 부정적 감정, 긍정적 감정을 포함하여 행복도를 산정하였으므로 행복보고서라는 명칭이 타당했을 것이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에서는 '왜 행복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관적 안녕'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행복이라는 용어 사용을 통한 대중적 관심의 환기를 의도하였다고 밝힌다(Helliwell et al., 2015, p.15). 여기서는 이 의도를 차용한다.

8) 분석대상에 저소득 국가가 다수 포함되면 1인당 GDP와 행복도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BLI와 국가별 행복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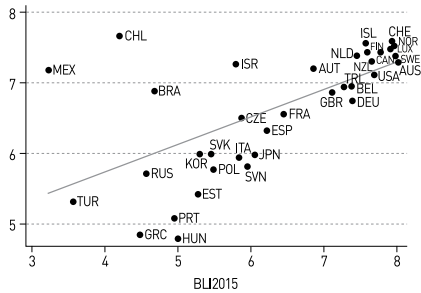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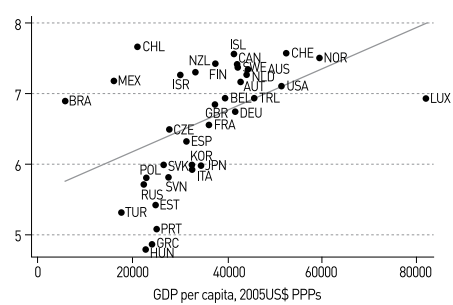


그림 2. GDP와 국가별 행복도의 관계



[그림 1]과 [그림 2]는 BLI와 행복도, GDP와 행복도의 관계를 따로 제시한 것이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북미·남미의 3개국은 낮은 삶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행복(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찍이 자프는 객관적 삶의 조건과 주관적 안녕의 정도를 고려한 네 가지 복지 상황을 상정하면서, 객관적 삶의 조건이 열악함에도 주관적 안녕의 수준이 높은 복지상황을 ‘수용’(Adaption)이라고 정의하였다⁹⁾. 그러므로 이들 국가의 주관적 안녕 수준이 높은 것을 마냥 좋게 바라볼 일은 아니다. 반대로 객관적 삶의 조건은 양호한데, 주관적 안녕의 정도가 낮은 상황은 ‘부조화’(Dissonance)다.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부조화의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그리스, 포르투갈은 2005~7년에 비해서 주관적 안녕 수준이 각각 1.470, 0.304 하락하였다. 남유럽의 재정

위기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BLI 수치를 통해 확인하는 것보다 해당국가 국민의 체감 수준에서는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OECD BLI의 주요 내용

OECD BLI도 사회의 안녕(well-being) 정도를 측정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2009년 스티글리츠, 센과 피투시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요청한 경제적 성과와 사회진보의 측정과 관련하여, 약 30개의 조연을 남겼다¹⁰⁾. OECD BLI의 이론적 기초를 설정한 『How's Life?』 보고서는 이 조연을 따랐으며, ‘GDP가 사람들의 안녕을 적절히 측정하지 못한다’는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문제 인식을 공유한다. 그리하여 OECD BLI는 크게 두 차원

9) Zapf, W. (1984), Individuelle Wohlfahrt: Lebensbedingungen und wahrgenommene Lebensqualität, In W. Glatzer & W. Zapf (Eds.), Lebensqualität in der Bundesrepublik (pp. 13~26), Frankfurt: Campus

10) Stiglitz, J. E., Sen, A., and Fitoussi, J.-P. (2009), Report by the Commission on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삶의 질 차원이다. OECD는 이 두 차원과 그 하위 측정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물질적 삶의 조건 측정영역은 소득과 자산(wealth), 직업과 소득, 그리고 주거이다. 소득과 자산은 각 개인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소비가능성을 측정하는 개념이다. 일자리를 가질 가능성과 주로 소득수준으로 측정하는 일자리의 질은 물질적 안녕과 관련이 있으며, 또 일은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것 뿐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는 기본적 욕구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안전, 사생활 등과도 관련이 있다.

둘째, 삶의 질 측정영역은 건강 상태, 일과 삶의 조화, 교육과 기술, 사회적 관계,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환경적 질, 개인적 안전, 주관적 안녕이다. 건강은 한 개인의 활동, 그리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을 고양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원이다. 일과 삶의 조화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참여와 거버넌스의 질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또한 다른 많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다. 깨끗한 환경은 개인의 건강과 관련되며, 또 다른 많은 필수적 활동의 수행가능성을 결정짓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주어진 환경과

각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와 주관적 감정이다”¹¹⁾.

<표 3>은 BLI의 각 측정지표별 한국의 순위와 영역별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교육 분야, 그리고 범죄피해율과 살인율로 추정되는 개인의 안전에서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건강상태, 일과 삶의 조화, 사회적 관계, 환경의 질, 주관적 안녕에서는 아직까지 저조한 발전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BLI에서 측정하는 영역별 성과의 편차가 큰 편이다. 다시 말해, 영역별 발전 수준이 고르지 않다. 구체적으로, 공공참여와 거버넌스는 전체 35개 선진국 중 4위를, 개인의 안전은 6위를, 교육과 기술은 7위를 기록한 반면, 환경의 질은 28위, 일과 삶의 조화는 33위, 사회적 관계는 최하위이다.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영역의 세부지표별 편차도 그러하다¹²⁾. 전체 7위를 차지한 교육과 기술 영역에서 학생들의 기술은 전체 36개국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성인의 학력수준은 16위, 기대교육기간은 19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향은 직업과 소득 영역에서도 나타나는데, 장기실업률은 36개국 중 1위를 차지한 반면, 고용률은 22위에 머물러 영역순위가 16위에 불과하다. 반면, 낮은 순위를 기록한 영역에서는 지표별 순위의 편차는 크지 않아 보인다. 영역 순위가 33위에 불과한 일과 삶의 조화에서는 각 세부지표의 순위가 33위(장시간 근로자), 25위(여가시간)의 낮은 수준이다. 28위인 환경의 질은 세부지표의 순위도 31위(대기

11) OECD, (2011), How's Life?: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p.19-20

12) 36개국의 세부 측정지표 순위의 표준편차는 평균 8.91이다. 편차가 작은 국가, 즉 지표별 순위의 동질성이 비교적 큰 국가는 노르웨이(6.7), 독일(6.9), 포르투갈(7.1), 오스트리아(7.6), 슬로베니아(7.8) 등이다. 우리나라의 편차는 11.0으로 러시아(12.4), 일본(12.2)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표 3. OECD, Better Life Index 지표와 한국순위

측정차원	측정영역	측정치표(단위)	한국 값 (순위)	영역점수 (한국순위)	측정 기준 년도	자료출처
물질적 삶의 조건 (Material Living Conditions)	주거 (Housing)	기본시설이 없는 가구 비율(%)	4.2 (28)	5.67(20)	2010	각국 통계
		주거관련지출 비중(%)	16 (2)		2012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개인당 방수(비율)	1.4 (25)		2010	각국 통계
	소득과 부 (Income and Wealth)	가구원당 순가처분 소득(US\$)	19,510 (24)	2.23(24)	2012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가구원당 금융순자산(US\$)	29,091 (20)			
	직업과 소득 (Jobs and Earnings)	고용률(%)	64 (22)	7.26(16)	2013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직업안정성(실직 위험률)(%)	3.2 (5)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 Labour Market Statistics 등 (계산)
		1년 이상 장기실업률(%)	0.01 (1)			
		노동자 개인소득(US\$)	36,354 (18)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사회적 관계 (Social Connections)	사적 지원관계망의 질(%)	72 (36)	0.00(36)	2014	Gallup World Poll
	교육과 기술 (Education and Skills)	성인 중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비율(%)	82 (16)	7.91(7)	2012	OECD, Education at a glance
		학생들의 기술(평균점수)	542 (1)			
		기대교육기간(년)	17.5 (19)			
	환경의 질 (Environmental Quality)	대기의 질(PM 10 농도)	30 (31)	4.85(28)	2010	World Bank database
		수질에 대한 만족(%)	78 (26)		2014	Gallup World Poll
	공공참여와 거버넌스 (Civic Engagement and Governance)	규칙제정 과정의 협의(평균점수)	10.4 (6)	7.49(4)	2008	Indicators of regulatory management systems
		투표율(%)	76 (12)		201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건강상태 (Health status)	기대수명(세)	81.3 (14)	4.69(32)	2012	OECD, Health data
		자기보고 건강상태(%)	35 (35)		2013	
	주관적 안녕 (Subjective Well-being)	삶의 만족도(%)	5.8 (29)	3.7(29)	2014	Gallup World Poll
	개인의 안전 (Personal Security)	범죄피해율(%)	2.1 (6)	9.49(6)	2010	Gallup World Poll
		살인율(10만인당 피살자 수)	1.1 (20)		2012	Health data
	일과 삶의 조화 (Work and Life)	장시간 근로자(%)	18.72 (33)	5.01(33)	2013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database
		여가·개인적 돌봄에 쓴 시간(시간)	14.63 (25)		2009	Time Use Survey database(계산)

주: 1) 갤럽월드폴의 설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 지원관계망의 질(곤경에 처해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음), 수질에 대한 만족(살고있는 지역의 수질에 대해 만족), 범죄피해율(지난 12개월 동안 공격받거나, 강도를 당한 경험), 삶의 만족도(0점부터 10점 사이에서 현재 삶에 대한 평가).

2) 영역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영역의 명칭은 'How's Life?'의 기준을 따랐다.

3) 각 측정영역의 점수는 측정영역별 지표를 최소-최대 정규화한 후, 산술평균하여 계산하였다.

의 질), 26위(수질만족도)에 불과하다. 24위인 소득과 부 영역의 세부지표 또한 24위(가구원당 순가처분소득), 20위(가구원당 금융순자산)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BLI의 측정영역과 각 측정지표는 직관적 타당성을 고려하는 표면타당성(face validity)과 정책적 개입가능성, 국제비교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 배치되었다¹³⁾. 즉, 현재의 지표 구성체계는 국제비교를 위해 전문가의 판단을 기반으로 표준화되어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특정 영역을 즉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BLI 결과의 적절한 해석을 위해서는 영역별 접근보다 개별 측정지표를 종합하는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주성분분석을 통하여 11개 영역 24개 지표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4. OECD BLI의 재계산

OECD BLI의 구조는 개별 측정영역 내에서 각 지표들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환경의 질'에 대해서는 대기의 질이나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50%의 영향력을 가진다. 하지만, OECD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측정영역 각각이 삶의 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정보의 이용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

래서 BLI를 제공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삶의 수준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측정영역과 그 정도를 이용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표 1>, <표 2>에서 제시된 BLI의 점수 및 순위는 각 측정영역 및 각 측정영역에서 지표가 동일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계산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중치 부여가 타당한 것인지의 의문이 남는다¹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은 14위지만, 자기보고 건강상태는 35위로 낮다. 만약 기대수명이 삶의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해야한다. 또 한편으로는 소득과 부의 영역이 환경의 질 영역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다른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첫째, 2개의 측정차원-물질적 삶의 조건, 삶의 질-을 구분하여 접근한다. 이것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커다란 두 조건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각 측정영역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각 측정영역 내에 속한 지표를 측정차원 단계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셋째, 최종 지수 산출에서는 각 차원에 배치된 측정영역의 수를 고려한다.

각 지표를 측정차원의 단계로 끌어올린 이후에는 다른 형태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재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본 고에서는 Nicoletti 외(2000)가 제안한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가중치 부여방식을 이용

13) OECD, (2013). How's Life? 2013: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25.

14) 이외에도 최소-최대 정규화를 이용한 지표 정규화 방법에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지표에서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일 경우 다른 모든 국가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다. 이를 다른 지표와 산술평균하게 되면 해당 지표의 상대적 영향력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는 정규화에 이용하는 최대치-최소치를 95% 수준에서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각각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하므로, 여기서는 문제가 일부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최소-최대 정규화를 실시한다.

그림 3. 물질적 삶의 조건의 2차원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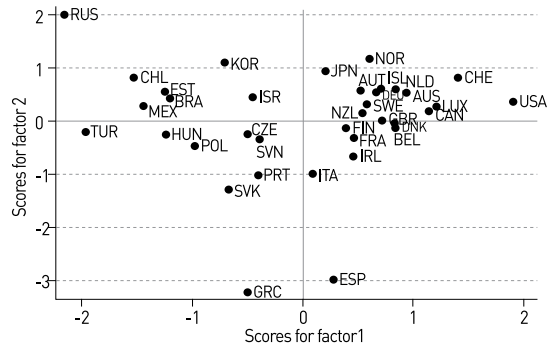


표 4.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의 가중치

지표	성분			가중치	가중치(소계)
	1	2	공통성		
개인소득	0.916		0.878	0.142	0.609
순가처분소득	0.900		0.850	0.137	
개인당 방수	0.845		0.719	0.121	
기본설비 미비 가구	0.795		0.766	0.107	
금융순자산	0.778		0.642	0.103	
장기실업률		0.904	0.832	0.140	0.391
직업안정성		0.844	0.719	0.122	
고용률		0.662	0.714	0.075	
주거관련 지출		0.558	0.370	0.053	
고유치	4.22	2.27			
분산 비중(%)	46.89	25.22			
크론바 알파	0.836				
KMO 측도	0.786				

한다¹⁵⁾. 지표는 정규화 과정에서 구성 내용에 따라 변환하였으며, 주성분 도출은 고유치 1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요인도출에서는 직교회전을 적용하였다.

15) Nicoletti, G., Scarpetta, S., and Boylaud, O. (2000). Summary indicators of product market regulation with an extension to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no. 226), OECD. 이를 위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이내찬(2012), OECD 국가의 삶의 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32(2), pp.5-40.를 참고할 수 있다.

1)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에서는 크게 2개의 주성분이 확인된다. 첫째는 소득과 주거의 질 관련이다. 주로 각종 소득 관련 지표가 배치된다. 둘째는 고용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관련이다. [그림 3]은 도출된 2개의 주성분의 좌표값을 이용하여 작성한 2차원 산점도이다. 한국은 소득과 주거의 질 관련해서는 평균 이하이고, 고용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은 평균보다 약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4>는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에서 재계산된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다. 소득과 주거의 질 관련은 60.9%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며, 고용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관련은 39.1%로 영향력이 떨어진다. 개별 지표 중에서는 근로자 개인소득이 14.2%로 가장 가중치가 높고, 주거비 부담수준이 5.3%로 가중치가 낮다.

2) 삶의 질 차원

삶의 질 차원에서는 4개 주성분이 확인된다. 첫째는 안전, 건강, 교육성과와 관련된다. 둘째는 주관적 만족과 공동체의 질적 수준과 관련된다. 셋째는 교육성취와 공적 협의과정과 관련된다. 넷째는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성분을 각각 이용하여 좌표점을 그렸다.

[그림 4]는 안전, 건강, 교육성과와 관련과 주관적 만족, 공동체의 질적 수준과 관련되는 2개의 주성분이다. 우리나라는 안전, 건강, 교육성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주관적 만족이나 사회적 지원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와 정반대의 경우는 브라질, 멕시코가 있는데, 이들은 안전, 건강, 교육성과는 낮지만, 주관적 만족이나 공동체의 질적 수준은 높다. [그림 5]는 교육성취와 공적 협의과정의 차원, 일가정 양립의 차

그림 4. 삶의 질의 제1, 제2 주성분의 2차원 산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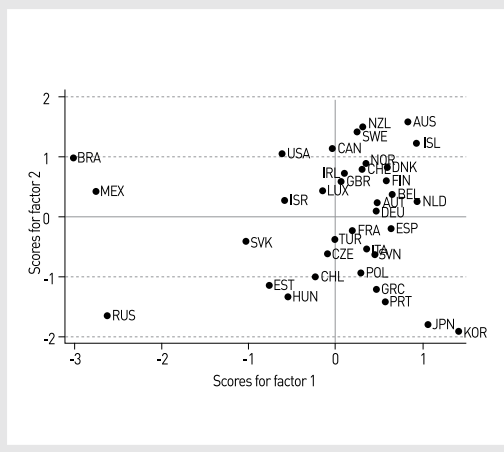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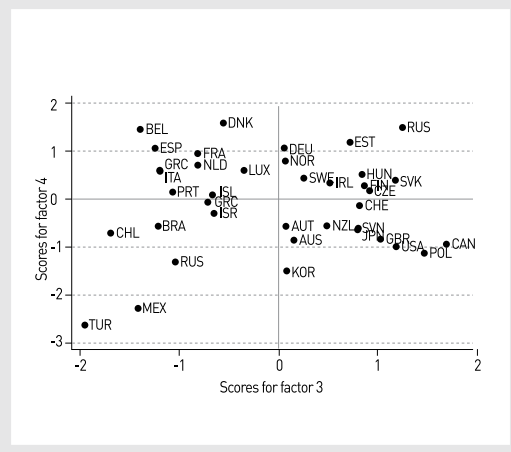


그림 5. 삶의 질의 제3, 제4 주성분의 2차원 산점도



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성취, 공적 협의과정은 평균 수준이지만 일가정 양립의 차원 분야에서는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삶의 질과 관련된 크게 4개의 성분 중에서 안전, 건강, 교육 관련 내용만 양호하고, 다른 부분은 평균 또는 평균 이하로 나타난다.

<표 5>는 삶의 질 차원에서 부여된 가중치를 제시하고 있다. 개별 지표 중에서는 성인의 학력 수준이 14.1%로 가장 영향력이 크고, 그 뒤를 이어 여가시간이 10.1%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관적 만족과 관련되는 자기보고 건강상태가 9.6%, 삶의 만족도가 9.1%의 영향력을 가진다. 반대로, 한국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던 지원네트워크의 수준은 3.9%로 낮은 영향력을 보이며, 그 외에 범죄피해율, 투표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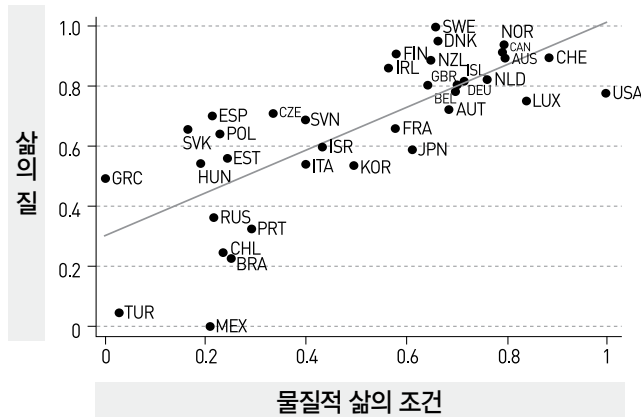
3) 종합 분석

이상에서 도출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한국의 삶의 수준을 구성하여 보았다. [그림 6]은 물질적 삶

표 5. 삶의 질 차원의 가중치

지표	성분				공통성	가중치	가중치(소계)
	1	2	3	4			
살인율	0.870				0.818	0.078	0.297
기대수명	0.801				0.748	0.066	
학생PISA점수	0.699				0.807	0.050	
기대교육기간	0.603				0.525	0.038	
수질만족도	0.566				0.719	0.033	
범죄피해율	0.548				0.759	0.031	
자기보고건강상태		0.871			0.767	0.096	0.257
삶의 만족도		0.847			0.732	0.091	
지원관계망		0.552			0.624	0.039	
투표율		0.498			0.462	0.031	
성인학력수준			0.823		0.784	0.141	0.225
규칙제정협의			0.493		0.624	0.084	
여가시간				0.871	0.822	0.101	0.221
장시간근로자율				0.796	0.785	0.084	
대기의 질				0.515	0.621	0.035	
고유치	5.309	2.336	1.771	1.180			
분산 비중(%)	35.390	15.580	11.810	7.860			
크론바 알파	0.851						
KMO 측도	0.618						

그림 6.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과 삶의 질 차원의 관계



의 조건과 삶의 질의 두 차원의 관계를 제시한다. 삶의 조건과 삶의 질 수준은 대부분 국가에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우리가 흔히 복지선진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물질적 삶의 조건에 비해서 삶의 질 측면에서 보다 우위를 보인다. 미국은 물질적 삶의 조건은 매우 양호하지만 삶의 질 차원에서는 선두 그룹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20위)에 비해서 삶의 질 차원(29위)은 낮은 발전 수준을 보인다.

<표 6>은 재계산한 BLI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측정영역간 동일 가중치를 적용한 BLI 순위가 27위였지만, 본고의 분석방법에 따르면 25위로 순위가 상승한다. 본 고에서는 각 차원에 배치된 측정영역의 수를 고려하여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에 3/11을, 삶의 질 차원에 8/11의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각 차원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순위는 22위로 상승한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물질적 삶의 조건 측면에서 발전의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5. 나가며

본고에서는 삶의 질과 관련한 주요 통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OECD BLI를 이용하여 한국의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해보고자 하였다. BLI는 사회진보 측정의 여러 도구 중 하나이면서, GDP와 같은 경제적 성과 측정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만들어졌다. 그 결과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정할 때, 국민의 행복 정도와 BLI는 밀접한 관련을 보이고 있다.

국민 삶의 질 수준을 진단하는데 있어 유용성이 부각되고 있는 OECD BLI에 대해 통계 맥락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에 비해서 삶의 질 차원이 낮은 발전 수준을 보였다. 특히, 삶의 질 차원 내에서도 취약 분야들이 확인되었다. 주관적 만족, 공동체의 질적 수준, 일가정 양립의 차원 분야가 특히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물질적 수준에서는 점차 양호해지

표 6. 삶의 질 차원의 가중치

구분	OECD BLI		물질적 삶의 조건 차원		삶의 질 차원		재계산한 BLI 지수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스웨덴	7.96	2	6.64	12	10.00	1	9.08	1
스위스	7.91	4	8.86	2	9.01	6	8.97	2
노르웨이	7.95	3	7.95	5	9.34	3	8.96	3
캐나다	7.78	6	7.93	6	9.21	4	8.86	4
덴마크	7.90	5	6.62	13	9.55	2	8.75	5
호주	8.03	1	7.95	4	8.98	7	8.70	6
미국	7.70	7	10.00	1	7.72	15	8.34	7
뉴질랜드	7.65	8	6.45	14	8.93	8	8.25	8
핀란드	7.57	10	5.83	17	9.09	5	8.20	9
네덜란드	7.45	11	7.65	7	8.27	10	8.10	10
독일	7.39	12	7.15	8	8.14	11	7.87	11
아일랜드	7.35	13	5.67	19	8.67	9	7.85	12
룩셈부르크	7.28	15	8.41	3	7.55	16	7.78	13
아이슬란드	7.58	9	6.99	10	7.91	13	7.66	14
벨기에	7.34	14	7.01	9	7.88	14	7.65	15
영국	7.13	16	6.45	15	8.01	12	7.58	16
오스트리아	6.88	17	6.89	11	7.25	17	7.15	17
프랑스	6.46	18	5.80	18	6.55	21	6.34	18
슬로베니아	5.95	21	3.98	23	6.92	20	6.12	19
체코	5.87	22	3.36	24	7.09	18	6.07	20
일본	6.05	20	6.12	16	5.90	25	5.96	21
스페인	6.23	19	2.16	31	7.02	19	5.70	22
이스라엘	5.82	23	4.35	21	5.99	24	5.54	23
폴란드	5.51	25	2.29	29	6.46	23	5.33	24
한국	5.30	27	4.97	20	5.39	29	5.27	25
슬로바키아	5.46	26	1.68	34	6.50	22	5.19	26
이탈리아	5.82	24	4.04	22	5.42	28	5.04	27
에스토니아	5.28	28	2.44	27	5.59	26	4.73	28
헝가리	5.00	29	1.90	33	5.46	27	4.49	29
그리스	4.49	33	0.00	36	4.93	30	3.58	30
러시아	4.57	32	2.19	30	3.71	31	3.30	31
포르투갈	4.97	30	2.93	25	3.25	32	3.16	32
칠레	4.21	34	2.39	28	2.44	33	2.43	33
브라질	4.67	31	2.50	26	2.31	34	2.36	34
멕시코	3.23	36	2.12	32	0.00	36	0.58	35
터키	3.58	35	0.30	35	0.52	35	0.46	36

주: 36개 국가는 재계산한 BLI의 순위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였음.

고 있는데, 주관적 만족이나 공동체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있는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유엔의 세계 행복의 날(3월 20일)에 맞춰 갤럽은 각국의 행복의 정도를 공개하였다. 갤럽의 행복도는 구체적으로는 ‘긍정적 경험 지수’(positive experience index score)로서, 잘 쉬었다는 느낌, 미소짓거나 크게 웃기, 기쁨, 존중받았다는 느낌, 재미있는 것을 배운 다섯 가지의 ‘경험을 하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이용한다. 이에 따르면 143개 국가 중 한국은 59점으로 118위(2013년 63점으로 94위)를 보였다¹⁶⁾.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질적 성취를 위해 숨가쁘게 경쟁하며 달려와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삶의 질을 챙기지 못했다.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도 힘들고,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도 못한다”.

OECD에서 발표하는 BLI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적 영역 중에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개량적 접근의 결과이다. 2014년 OECD 34개국 중 19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 규모를 생각했을 때, 현재 확인되는 우리나라의 삶의 수준은 여전히 우리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시간 근로의 비율을 줄이고, 여가 및 개인적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기반 하에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늘고, 고용과 가구의 경제 수준이 증가하면서 물질적 조건 기반도 더 양호해 질 것이다. 전략적 정책 경로의 설정과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연결될 것이다. ■

16) 갤럽은 우리나라에서 2014년 5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를 해석할 때,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